한국 국적 빨리 취득할 방법은? 임신 중 아내 데려올 수 없나요?

송광사회복지관, 이주민 무료 법률상담

"결혼한 지 1년4개월 된 이주여성인데요. 한국 국적을 빨리 취득할 방법은 없나요?"

8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광사회복지관 지하 1층 소강당(132.2㎡). 중국 출신의 치화(여·42·서구 쌍촌동)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이날 송광사회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교실'(아시아 밝음 공동체·한국국가법학회 공동 주관)이 열린 것이다. 이날 상담 교실에는 베트남·중국·미얀마 등에서 온 이주여성·유학생·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법률 상담에 앞서 이들은 '이주 여성을 위한 법률 상식 및 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들으며 김남진 아시아 밝음 공동체 통역팀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일부 이주 여성은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이어진 강의를 경청했다.

강의가 끝난 뒤 상담이 곧바로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질문 내용을 메모하며 순서를 기다렸다. 법률 상담은 이철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광주·전남 법학 전공 교수 6명이 맡았다.

조선대 약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 뷰이탄퉁(29)씨가 "임신 중인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라고 묻자, 김동복 교수는 "초청비자 기간은 3개월 뿐이다. (워킹비자로)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라면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중국 출신 이주여성 이여령(45·가명)씨는 이철환 교수에게 힘들게 입을 열었다. 초등학생 3학년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교수는 "우선 담임 교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무료 변론을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둡던 이씨의 낯이 순간 환한 빛으로 바꼈다. 2시간30분간 이뤄진 무료 법률 상담 건수는 모두 10여건. 내용도 체류자격 및 귀화 조건·국민건강보험·자녀 교육·임금 체불 등 다양했다.

상담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고민이 해결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상담 교수들에게 서툰 한국어로 "고마워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동규 아시아 밝음 공동체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이주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광사회복지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교실'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국가법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무안 등 교육장 최종 후보 11일 확정

전남도교육청은 주민추천 공모제를 통해 뽑은 교육장 최종 후보자를 오는 11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감은 1차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상호토론 등을 거쳐 무(無)순위로 오른 2명 후보를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들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확정하며, 9월1일 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장 공모제를 개청 이후 처음으로 목포와 무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응모한 2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심사를 진행, 1차 서류심사에서 지역별로 3명으로 압축한 뒤 2,3차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국장 등 당연직 2명과 도 교육청 인력 풀 가운데 추첨한 3명,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 중 6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공모제는 그동안 본청이나 시군 교육과장 등 전문직 중심으로 교육장에 임명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장들에 대한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 심사에서 심사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 논란에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설, 후보 추천자의 심사위원 포함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심사위원 추천 과정 등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평가 항목 자체를 공개하는 등 오해와 로비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고·순천고 전남 첫 자율고 신청

교육감 입장 변화 주목

전남지역의 첫 자율형 공립고(자율고) 지정 신청에 목포고와 순천고 등 2개 고교가 신청했다. 이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정에 반대 견해를 보여온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고와 순천고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2곳이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자율고 지정·신청 심의를 거쳐 2곳 중 1곳을 선정, 교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은 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전남에서 자율형 공립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립의 경우 올 초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유일하게 전환했다. 광주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상일여고와 내년부터 대상인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초등·농어촌·여교사들 교원평가 부정적

교육개발원 3661명 조사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가 교원평가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00개 초·중·고 교사 3천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보상을 달리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는 5점 척도에서 평균(3점)에 조금 못 미치는 2.9점이 나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찬성 의견이 많고, 1점에 가까우면 부정·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

동해 실종 '대승호' 北에 단속 조사 중

동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대승호'는 북한 당국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은 8일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동해 상에서 우리 측 어선이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5대승호'는 지난 8월1일 포항을 출항, 9월10일께 귀항할 예정이었으며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한 측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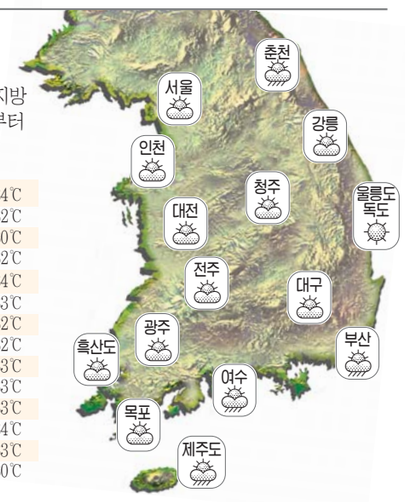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7분 해짐 19시 28분 달뜸 04시 25분 달짐 18시 42분

폭염에 소나기

가끔 구름이 많고 남해안 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5/34℃
목 포	구름 많음	24/32℃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24/30℃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23/32℃
구 례	구름 많음	23/34℃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23/33℃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23/32℃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22/32℃
순 천	구름 많음	24/33℃
영 광	구름 많음	24/33℃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23/33℃
전 주	구름 많음	24/34℃
남 원	구름 많음	22/33℃
흑산도	구름 많음	23/3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동~남동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 높음	경고	매우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3.0m

	밀물	썰물
목포	01:24 13:23	06:53 18:52
여수	08:18 20:55	02:19 14: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 씨						
최저/최고	26/31	25/31	26/32	26/32	26/32	26/32

광주·전남 폭염·열대의 밤

남해안 밤부터 비

9일 광주·전남지역은 8월 내내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해안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20㎜.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해안지방은 북상하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다"고 8일 예보했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에는 10일과 11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려 낮 최고기온이 1~2도 가량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12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풍기 사고 조심"

올 7월까지 66건 발생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선풍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선풍기 안전사고는 모두 19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벌써 66건이 일어나 2008년 전체 안전사고 건수(5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75건)에도 육박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은 작동 중인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서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18%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했다.

선풍기 화재(34건)는 절반 가량은 집에서, 절반 가량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났다. 특히 교실에서 일어난 선풍기 화재가 8건에 달했다. /연합뉴스